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등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장	김재환
주최	외대신문사 (☎02-7128-9652 ~ 7128-9655 ~ 7001)
주최	외대학보 (☎02-7128-9655 ~ 7048-9655 ~ 7001)
주최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주최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창산리
인쇄	인쇄
인쇄	인쇄
인쇄	인쇄

제 514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4월 18일 (화요일)

다시
서야
할
너
4월
이여!



◇ 펴헤: 「작화공방」 공동창작 「민생은 반드시 승리한다」

개교, 4·19 기념특집호 주요 기사

- 1면: 평화·시
- 2면: 논설면-중권시장 경쟁과 한국경제
- 3면: 보도기사
- 4면: 학술1면-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직문제에 관한 일고찰
- 5면: 사회1면-울산현대중공업 파업지원투쟁을 다녀와서
- 6면: 정치특집 I-가상기행론
- 7면: 정치특집 II-평화와 친선, 반제연대성을 위하여
- 8-9면: 4·19 및 개교기념특집 I-외대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 10면: 4·19 및 개교기념특집 II-중흥의대를 위한 일 제언
- 11면: 학술2면-일제하, 그리고 해방공간의 메이데이 투쟁
- 12면: 사회2면-권력의 청부폭력집단, 호국청년 연합회
- 13면: 문화2면-민족미술의 자주적 전통론
- 14면: 보도기획-본교 상징할 수 있는 건물시설 필요하다
- 15면: 기획면-전혀없는 교과과정 개편작업
- 16면: 문화1면-문예산책, 이땅에 무지개는 뜨지않는가

우리들의 사월이

(백기환 시인)

우리들의 사월은
진달래로 터지고
거리의 함성으로 터지는
우리들의 사월
우리들의 사월은
축축히 내리는 봄비에
그림자 피어날 때
이름없이 쓰러진
민족전사들의 넋이 트이는
우리들의 원통한 사월
그 사월을 짓밟는 사월이 있다
그 짓밟는 자와 싸우는 사월이 있다
그 싸우는 자를 부추기는 사월이 있다
그 부추기는 자와 싸우는 사월이 있다
사월을 수유리에 기념해 놓고
영원히 파묻어 버리려는
위선과 맞서는 사월이 있다
그렇다 이제 우리들의 사월은
거짓된 꽃다발에 호는끼는
제삿날이 아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월은
부슬부슬 봄의 신부가 아니다
천하를 일깨울
만고강산 비바람
해방의 함성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들의 사월이 아니다
잠든 이는 이마를 때리고
저진 이는 가슴을 때리고
이제 우리들의 사월은
역사를 뒤우는 사월
분단의 반역을 제끼는 사월
오그늘의 함성
터져나오던 사월이여
어깨를 꺼라
발맞추어 함께 일어나라
자연의 사월은 대지를 일깨우지만
우리들의 사월은
자유, 해방, 통일, 통일 신바람
통일 신바람만이 우리들의 사월이다

개교35주년

무궁한 發展을 祝願합니다

동아리연합회

언론협의회

대학원학생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강사협의회

교수협의회

민주동우회

동문교수회

총동문회

(우순)

사설

정권말기적 탄압책동을 보며
-반 노태우 투쟁은 청년학도 모두의 사명

문학관 옥사의 반박이 청년들에게는 「공명정대」 들론 미친 노인의 유희물일지, 애국적 민주주의적에는 「조국통일」을 앞장서는 선구자적 패기가 인식되고 있는 현 시국은 가히 「탄압국면」이라고 불릴 만할 엄중하다.

그동안 노태우는 제헌일 무기언론의 초라한 이유였던 「사회혼란 우리들」 「과거특별법명세책」이라는 준열(7)한 구설로 대치시키고, 「7·7선언」을 스스로 내린 채 각계각층 민주 세력의 호도화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권의 카텔레지적 속성에 기생하여 지난 「4·13호선조치」와 「6·29선언」, 「조국통일」이라는 어지러운 실수(7)를 주지 않았던 국무총리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다 충격을 주며 「전진선의 과수 문인들은 자폭하다」 「과거공공체적은 모조리 복속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권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태우정권과 「유익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중들은 과정이고, 무질서, 폭력만을 바라는 세력들도 배도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전례적 도발행위이며 정권수호를 위한 반 민주적 폭거로 볼 수 밖에 없다.

현권, 종교단체, 여성단체, 교수와 언론인들 각계각층의 민주적 인사들이 시국판단 상정을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고, 이러한 특압상황을 이겨내고 자각과 민주, 통일, 민족을 열거하여 움직이고 있다.

본국의 상황만 보아도 양정비서 총각출세로 충격을 주기를 위한 다양한 사법들이 줄이, 집회와 사고, 서울특별시 학생회에서는 노태우의 학원 입학 수락을 사전에 배기, 저지하기 위한 반대제도를 설치하고, 규율과 배따라 철야사수투쟁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현시국은 우리에게 「청년학도」라는 민주적인 호창에 걸맞는 입부들을 요청하고 있으며 수를 공세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국면에서 건장함을 고지시켜 자신의 정열을 쏟으려는 학생들 들은 정권의 폭압이 눈에 띄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학도의 사명과 임무는 무엇인가.

반노태우 투쟁을 계속 해와서라도 열거속에서, 우리의 임무는 반민주세력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을 통렬히 제압해 내는 일이다.

반 노태우 투쟁은 이미 한두명의 활동가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조국을 지키고자하는 모든 청년 학도에게 부여된 중대한 「현실」인 것이다.

이 일 수

정부가 8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를 표방한 이래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 준다것을 감안하면, 이 「자본자유화」의 노태우는 어느새 「자본자유화」라 함은 돈의 원자화, IMF 8조국채의 가입 등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대학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의대인은 비탄 감격과 깊은
감회에 잠기는 바가 있습니다.

1954년 4월, 6·25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출발한 본교가 이런
35년이라는 짧은시간에
영광을 쌓아 오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생애가 무수한 우
여국정과 고적이 있었기 때문
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이념과
역사의 배후에는 깊은 나라
정신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다시 행한 것이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운명처럼 거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라고 하겠
습니다. 나는 35년 본교의

요람과 오늘의 이 거대한 대
학의 규모를 보아도 불멸하다
대학건설에 임한 각자가 애
를 안고서, 기기에 신행을 기
울인 선 전제 의대인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변화
를 수반해야 할 시대에
적응하여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이제는 의대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입니다.

개교 35주년
기념축사

20일은 우리
한국의국대
개교 35주
년을 맞이
하는 날입니다.
의대를
사랑하
는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개교 35주년
기념축사

20일은 우리
한국의국대
개교 35주
년을 맞이
하는 날입니다.
의대를
사랑하
는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개교 35주년
기념축사

20일은 우리
한국의국대
개교 35주
년을 맞이
하는 날입니다.
의대를
사랑하
는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개교 35주년
기념축사

20일은 우리
한국의국대
개교 35주
년을 맞이
하는 날입니다.
의대를
사랑하
는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은 모든 의대인

평화와 친선·비핵화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복지에 관한 의식조사

중속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학생행적 참여

학생·교수·직원 3자가

(4) 학원 자주화

의대생들 대부분이 「학원자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교수·직원 모두가 학원행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인상된 등록금에 대해서 서울(51.6%), 용인(60.6%), 전제(55.8%)로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불만족으로 지니 「저출생학원」인 전제 학원자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교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를 수 없겠다(16.7%), 모르겠다(14.5%), 예산상의 한계를 들어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12%)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자주화 학원행정의 구체적인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문제에 총장선거법에 대해서는 교수·학생·직원 모두 가져야 한다(59.2%)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감시자원에 그쳐야 한다(24.8%)는 입장이 20%에 불과했다. 그의 편성(9.8%), 무응답(4.0%), 학교측 고유권한(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임용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으로 교수 결정해야 한다」가 55.5%로 가장 많은 입장이었으며, 교수·학생 등등한 자격으로 추천·임용권을 가져야 한다(29%), 교수들의 권한(2.5%) 순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다수가 학생의 학사행정참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교수현황의 문제점

시간강사 과다(43.2%)

(5) 교과 과정

본교생들이 교과과정과 교수인 상

황에 대해 커다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의 각 학과의 현재 교과 과정에 대해 대부분 그치지않다(46.7%)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만족(36.7%), 만족(14.7%)로 현재 교과 과정에 대해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본교의 교과 과정의 다소간의 수정을 바라고 있는 것

했다.

한편, 교수현황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시간 강사의 과다현상에 대해 상경대(58.1%)가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서양대(55.2%), 서문대(48.2%)등도 나타났다.

한편 전공과목의 교수부족의 문제가 전체 응답자 중 28%로 보인 반면 자연대(60.9%)로 전공교수부족에

대부분이 개선되어야

복지시설에 관해

(6) 복지문제

현재 본교생들이 가장 많이 문제

로 지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의료시설로 밝혀졌다. 전체응답자 중 의료시설에 대해 불만족(34.2%), 대단히 불만족(24.1%)인 반면 대단히 만족한다는 0.5%에 불과했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가장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공간역시 의료시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불만족(26%), 불만족(33.7%)로 응답자 중 70%정도가 유치공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유식공간은 서울캠퍼스(불만족 36.5%)와 경주 용인캠퍼스(30.3%)에 비해 더욱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식당의 경우는 보통(32.4%), 불만족(31%), 대단히 불만족(36.5%)

(17.4%)의 응답으로 개선의 여지는 지적하고 있으나 그리 부정적인 편은 아니다. 그러나 식당의 복지시설에서 특히 할만한것은 서울캠퍼스(보통 35.6%)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인캠퍼스(불만 38.3%)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청의 경우는 서울·용인 양캠퍼스 모두 보통이다(40.6%, 41.3%)의 반응을 보여 커다란 문제점이 지적되지는 않았다.

한편, 우체국은 전체응답자 중 45.9%가 「보통이다」에 답하고 있고 「불만족」의 경우도 10%가 채안돼, 복지시설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사적도 대청과 거의 비슷한

의 불편을 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습실에 대해 총응답자 중 35.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연구실(35.1%), 사무실(42%)에 많은 학생들이 「보통이다」에 답하였다.

교육지원캠퍼스 학생에 한하여 결혼비용지원비에서 차내시설, 중간장차에 대해서는 보통에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폐지시간, 버스노선은 불만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시간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 중 46.8%

가 불만족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노선은 30.3%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내시설, 중간장차 각각 「보통이다」에 응답한 학생이 43.1%, 51%로 나타나 용인캠퍼스의 교통문제에 폐지시간, 운행 노선등의

등록금인상불만: 55.8% 예·결산 편성·심의권 가져야: 59.2% 교수·학생·직원직선으로 총장선출: 42.8%

응답율로 복지시설에 있어서 의료시설, 식당, 유치공간부족등을 제외한 여타 복지시설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진행에 따른 실습공간에 대한 질문은 전체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이다」에 답하고 있다.

선배생으로서 먼저 강의실의 경우는 보통이다(38.3%), 불만족이다(25.6%), 대단히 불만족이다(9.8%)로 나타났다. 불만족한다는 9.2%에 불과하였다.

특히 용인캠퍼스와 서울캠퍼스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용인캠퍼스의 불만족이 33.8%로 우선순위에 비해, 용인캠퍼스는 보통이다(45.2%)가 우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서울캠퍼스의 공간현황과 강의실의 시설 낙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열람실은 전체응답자 중 33.9%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이 답했으나, 서울캠퍼스 응답자 중 보통이(40.2%)가 가장 우선순위에 비해 용인캠퍼스는 응답자를 불만이다(31.9%)로 중앙도서관이 없어 일시적으로 열람실을 이용해야하는 학생들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신뢰감

학생·교수·직원관계의 선결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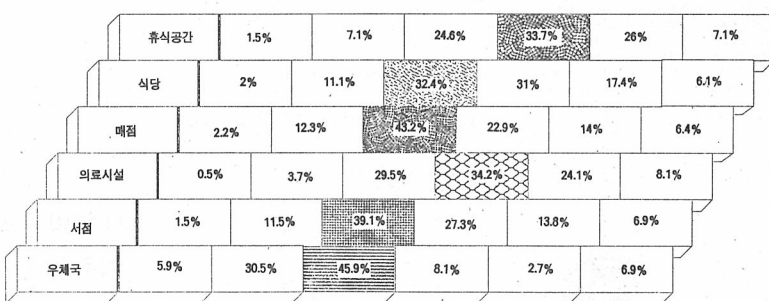
(7) 기타

「학생과 교수간의 신뢰가 있다고 보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전체응답으로 보통이다(33.2%) 조금 그렇다(27%) 그렇지 않다(21.9%) 거의 그렇다(11.5%) 대단히 그렇다(1.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캠퍼스별로 볼 때, 서울캠퍼스의 경우, 보통이(35.6%)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용인캠퍼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31.4%)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학생과 교수간의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 많았고 특히, 용인캠퍼스의 경우 학생·교수간의 신뢰성 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교수들이 용인캠퍼스에서 장수하는 시간이 짧아,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이 거의 없는 실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학생과 직원간의 관계 역시 총응답자 중, 보통이다(44%) 신뢰가 있다(20.4%) 사후적인 일차원에서의 교육직원의 불신감해소에 생기는 불신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겠다.

◇ 복지문제

대단히 만족스럽다. 약간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기타



서울·용인 이질감 사회적 통념에서 기인

극복방안으로 양캠퍼스의 활발한 상호교류들

으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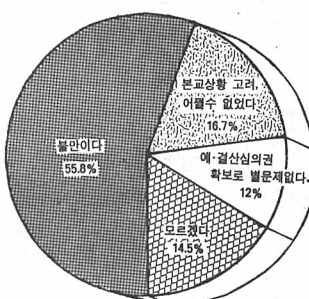
현재 교수진 상향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45.2%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그치지않다(44%), 만족한다(9.8%) 순으로 나타났다. 단대별로 살펴보면, 교수진 상향에 대해 가장 문제점을 많이 느끼는 대학이 인문대(63.2%)이며, 정과대(62.5%), 상경대(54.8%), 동양대(5.3%), 서문대(50.6%)로 이어졌다.

비이학계열의 교수진 확보가 열악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교수들의 현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동문교수의 부족(5.2%), 기타(8.6%), 전공과목교수의 부족(28%), 시간 강사의 과다(43.2%) 우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예산절약을 위해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본교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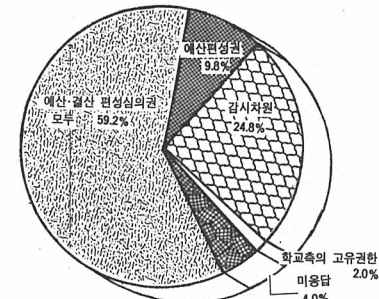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동문·동양이 대 각각 1.0%, 36.7%로 동양이학계열의 교수가 부족한 형편임이 지적된다.

한편, 본대학의 서울·용인 캠퍼스 중북부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용인캠퍼스에서 가장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는 지역학문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75.4%)로 용인캠퍼스(81.4%)는 서울캠퍼스(70.3%)에 비해 더욱 지역학도입의 절실함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지역학의 필요한 이유와 방법을 있어서 「다양한 학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 양캠퍼스 모두 실시」가 전체 응답자 중 58.5%로 가장 많이 대답했다. 그리고 양캠퍼스의 대동한 발전을 위해 용인캠퍼스만 실시(17.7%), 서울캠퍼스만 실시(1.5%)로 각과 나타났다.

◇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응



◇ 예·결산 편성심의권



그때 '백종원'의 삶, 그 후에 다들 물어봐
그때는 '노년의 삶' 그 시기에 맞은 것일다

칼릴 지브란

모래 물거품

생물들이 평정한 삶의 전리로
우리 영혼 깊숙히 파고드는
영원 지니와의 삶
그의 기행과 고독으로 이루어진
이 한권의 노래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칼릴 지브란 - 정문희/칼 4,000원

702-2921 **진선** 717-2131
영남대 영남출판

프랑스어

5-6월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89.5.1(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 Adolescents-Adultes

TEL: 757-5072 (중구)
TEL: 555-1125, 1126 (남구)

se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eoul = 555-1125, 1126(남구)

— 초급 문법, 회화 일반반
— 중·고급회화, 비디오편
— 시사·무역·외환·통상·통번역반
— 문학특강반, 연극 및 토론반

alliance Française
프랑스어 교육기관

종로2가에 (주)시사영어사가 직영하는
본격적인 영어회화 학원

Si-sa ECC
영어회화 전문코스

English Conversation Center

교수진 전원 미국인 Native Speakers
전 강의실 첨단 Video/Audio 교육요새화

● 1일 2시간 · 주 5일 · 4주 단위 수업
● 영어회화는 강사 1인, 회화전문교사는 강사 2인
● 7시간은 일일특강 수업, 회화전문교사는 강사 2인
● 다양한 학습 서비스, 풍부한 학습 편의시설과 공간
● 총 15년째 교육과정에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 한 학과 12명 이하 정원 · 영어회화 수업장면

● 교육비용
주: 회화 전문교사, Writing Club, Conversation Club 등 다양한 서비스
Self-Study Lab, A/V Room, A/V Room 등 학원내외에 편의시설

● 강의시간
7:00 ~ 8:00
8:00 ~ 11:00
11:00 ~ 12:00
2:00 ~ 4:00
4:00 ~ 6:00
6:00 ~ 8:00
8:00 ~ 10:00

● 등록금
등록금: Si-sa ECC 입학안내서 (해당교 교육비 포함)

상당전화: (277) 6812~4

英 字 日 刊 紙 **The Korea Herald** 直 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4월 3일

英語·日語

中·佛·西·露·獨語

● 크리이 해독법 社報 ● 영문해석
● 동시통역 대학원입시반 ● 기조영어
● 고득점 TOEFL 종합반 ● 영문종합
● AFKN 스크린 합동 ● 기보영어
● Vocabulary 22,000 ● 실용기초
TOEFL L/C TIME
● 생활 영어 회화
● Practical English · Stream Line
● Spectrum English · English Alive
● 日本人會話 ● 일본어(비상임) I · II
● 日本人會話 ● 일본어 SCREEN

◆ 제53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1989년 4월 7일
교육과정: 1일 2시간 · 주 5일(월~금)
수업: 총 6개 수준 · 각 수준 8주
강 사: 미국 Harvard 대학출신교사
학력 수준: 교사의 친한 Native Speakers.
전원합격반: 개인별 테스트에 의해 수 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 반 12명으로 반편성

◆ 수업시간 ◆
7-9 AM 5-7 PM
8-10 AM 6-8 PM
9-11 AM 7-9 PM
10-12 AM 8-10 PM

이하일 2호선 충정로 입구 757-0419
이하일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코리아헤럴드 연수원

2955

2956

